

담양군, 민선 8기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 박차

유기질비료 지원 단기·양 확대, 축분처리·악취 민원 해결 청년농 육성·여성농업인 행복마우처 등 삶의 질 향상 집중

담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의 제1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잘사는 부자농촌'을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확대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지난해 1천200원이었던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를 상향해 2천800원으로 정책 지원하며, 70만포에 105만포로 지원량을 확대해 농업인들이 각종 물가 상승 및 고유가 시대에 경영비 부담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어느 시군이든 과제로 남아 있

는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문제와 악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의 한·육우 가축분뇨 위탁 처리량은 1만9천으로 위탁 처리 비율이 14%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 사업의 확대에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며 자연순환 및 친환경농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산면의 한 축산농가는 "큰 고심거리였던 축분처리 문제가 민선 8기 들어 가축분 퇴비 사업의 확대로 회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돼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으로



담양군이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병노(왼쪽서 두번째) 군수가 모내기 현장을 방문, 직접 묘판을 옮기며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타작물 재배면적을 20ha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분질미 시범 재배단지 조성 및 유채, 헤바라기 등 신규 경관작물

단지를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청년농 3만 명 육성과 발맞춰 올해 청년 후계농을

전년 대비 28명 확대된 45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한 관내 청년농업인 영농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농부 육성사업'으로 농가 26곳(27억)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경영 4-5년 차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속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마우처 지원사업'에 군비를 투입해 지원 금액과 연령을 확대했으며, 농번기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전체 인구의 약 50%가 농업에 관련돼 있는 담양은 농민이 잘 살아야 담양이 잘 살 수 있다"며 "민선 8기 임기 내 다양한 농업 분야 지원을 통해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추진 탄력

광양시, 정차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정차 횟수 많을수록 비용 편익도 높아져"

경전선 KTX-이음의 광양역 정차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차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양시는 "최근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경전선 KTX-이음의 광양역 정차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백정일 경전선 KTX-이음 민간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분석 내용을 보고 받고 추진 상황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용역 보고 결과 경전선 KTX-이음의 광양역 정차 경제·재무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광양시의 KTX 광양역 정차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전선 KTX-이음의 광양역 정차 비용편익 분석은 무정차, 3회, 5회, 10회 정차로 나눠 분석했으며 그 결과 무정차보다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비용편익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분석이 높은 이유는 광양역의 역사와 기존 시설 활용 여건이 확보돼 있어 별도의 추가 건설비용이 필요 없고 장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 때문이다.



광양역에 주차장 추가 조성, 도로 개선 등 시설투자가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장래 이용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는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의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해 올해 하반기 결정될 경전선 KTX-이음 노선 계획에 광양역 정차가 반영되도록 박

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는 광양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보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광양시에 경전선 KTX-이음이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계부서의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60억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육전·무만·내동 3개 마을 선정

보성군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등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벌교읍 육전·무만마을, 문덕면 내동마을이며 마을별 사업비는 약 20억원(국비 70%·도비 9%·군비 21%)이다.

3개 마을은 지난 4년 간 방치된 빈집과 슬레이트 등을 철거하는 주택 정비사업, 마을 안길 정비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며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1차 평가와 농식품부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노인 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뛰어들어 2019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첫 삽'

785억여원 투입 2025년 6월 준공...1일 5만t 공업용수 공급

여수시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이 첫 삽을 떴다. <사진>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기명 시장, 김희재 국회의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은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내 처리시설 1개소와 공급관로 18.6km를 시설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까지 국비 410억원·민간자본 329억원을 포함 총 785억여원이 투입되며 여수그린허브 주식회사(대표

사 테크로스 워터&에너지)가 사업을 수행한다. 이로써 여수국가산단에 1일 5만t의 하수 재이용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비용 절감은 물론, 그동안 남해안으로 방류됐던 하수처리수 재사



작업은 순서대로 안전은 원칙대로.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착공식. <여수=김진선 기자>

용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속된 가뭄에 따른 산단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 여수경제의 주축인 산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탄소중립 흡 살리기 토론회' 개최

오는 22일 국회사...김순호 군수 "준비 철저" 당부

구례군이 탄소중립 흡 살리기 국회 토론회 주최를 통해 흡의 가치 알리기 나선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회토론회 주최를 통한 탄소중립 흡 살리기 실천 방안 논의 등 현안업

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오는 22일 국회사에서 '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관계부처, 농업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구례군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흡의 역할과 방향성 및 탄소중립 흡 살리기 성공 조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서동용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토론회가 흡의 소중함과 흡 살리기 방향성 알기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 인문행복학습센터 운영자 모집 14일까지...군청 총무과 방문 접수

화순군은 "지리적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문행복 학습센터 운영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인문행복학습센터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마을 복지회관, 경로당 등 마을 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는 마을 학습장으로 주민들은 인문행복센터에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최소 10인 이상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이며 화순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운영자(대표)가 지원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마을이나 단체의 대표가 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총무과에 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2)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지역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모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기관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6만여명 다녀가

고흥군, 축제 평가보고회...42억 매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 6만여 명이 방문, 고흥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보고회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유재홍 축제추진위원장과 관계자, 각 부서장 등 45여명이 참석해 지난 4월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 우주항공축제에 대한 평가, 추진성과-문제점을 공

공성한 불거리와 길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며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진행된 누리호 발사현장과 발사체 실물 견학을 비롯한 200여종의 우주과학 체험프로그램 행사는 초·중·고생 학교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호평받았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폭증하는 여행수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주차공간이 부족했고 특정 시간대 행사장 셔틀버스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향후 축제 준비 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흥=최봉환 기자